

유물의 안전한 포장 및 관리방법

이 내 옥
(국립부여박물관장)

유물의 안전한 포장 및 관리방법

<목 차>

1. 유물 포장

2. 유물의 안전한 취급방법

1. 유물포장

1) 포장과 해포에 따른 유물손상

오늘날 날로 증가하는 특별 전시로 인해 유물의 이동이 빈번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물의 이동이야말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느냐 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연구도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양에서는 유물포장에 대한 연구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포장 재료나 중요 유물에 대한 포장을 하나의 연구 논문으로 발표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물 포장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커녕, 논문이나 보고서로 작성되어 발표된 것은 한 편도 없는 실정이다. 유물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포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점으로 남아 있다. 포장기술은 오랜 기간에 걸친 숙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축적된 포장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이 개발한 포장기술을 전문적 학술지에 보고하여 널리 소개하는 작업도 장려되어야 한다.

어떤 유물을 대여하기로 결정이 되면 포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움직이는 과정에서 파손될 가능성이 많은 유물에 대해서는 보존과학자에게 의뢰하여 보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유물에 수반되는 틀이나 지지대도 함께 보낼 것인지 떼어 보관할 것이지도 결정한다. 만약 틀이 복잡하거나 연약하다면, 이를 단순하고 견고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액자의 유리는 가능하면 떼어 낸 상태에서 포장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다.

대여전시 과정에서 유물이 손상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장과 해포작업 도중이라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소중히 다루고 또 함부로 대하지도 않던 유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을 가하고 또는 마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이런 점을 유념하여 포장과 해포작업에 신중하게 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포장과 해포작업을 할 때 유의할 몇 가지 사항을 예로 들기로 한다.

전시 일정이 급박하게 잡히거나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여 포장이나 해포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관리관의 포장이나 해포시간을 지나치게 줄이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 작업을 진행하는 예도 있고, 또는 포장할 유물 양을 잘못 산정하여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히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따라서 우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장과 해포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포장과 해포

유물포장은 빌려 주는 측에서 공인하는 포장방법으로 행한다. 그러나 나라마다 유물의 구조, 재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방법이 같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솜 포대기를 이용한 포장을 주로 하고 있어서 외국과 방법이 사뭇 다른데, 이러한 방법은 충격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외국에서는 주로 유물의 형태에 맞게 주형(鑄型)을 만들고 거기에 유물을 넣는 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포장방법은 항상 빌려 주는 측의 의견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해포 한 포장 재료는 원상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유물을 반환할 때 원래의 포장 그대로 다시 포장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재 포장 할 때 다른 포장방법을 택하고자 하면 미리 유물을 빌려준 측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절대 임의로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

포장과 해포에 있어서 특히 주의할 점은 유물의 분실이다. 크기가 작은 유물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해포 할 때 그냥 포장재와 함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또 뚜껑이 있는 도자기와 같은 유물을 한 데 포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포 할 때 별도로 쓴

뚜껑을 발견하지 못하고 포장재에 꺼서 버리는 예도 흔히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해포 할 때 무심히 포장재와 휩쓸려 유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포장할 때 사전에 배려가 필요하다. 여러 점을 함께 포장하였다면 그 표면에 점수나 내용을 써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또 해포가 끝나더라도 포장재를 절대 버리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유물 점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 포장재를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포장할 때에도 일정한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고, 일차 포장된 내피상자를 외피상자에 넣을 때에도 일일이 목록과 대조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업하도록 한다.

해포 한 유물을 다시 포장할 때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해포 된 상자나 포장재를 원래의 상태로 배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외피상자에서 개개의 내피상자를 꺼낼 때 그 배치도를 스케치하거나 사진을 촬영해 두는 방법도 유용하다. 그리고 내피상자 안의 포장재도 해포 하여 유물을 꺼낸 다음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켜 두었다가 전시가 끝난 다음 그대로 포장하면 훨씬 시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외피상자가 해포장소에 도착하면 해포에 앞서 먼저 상자의 외양을 살핀다. 만약 상자의 외양에 파손되었거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유물에도 그 여파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자의 외양을 점검하는 일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포작업에 들어가도록 한다.

유물 해포작업은 원칙적으로 포장 순서의 반대로 진행한다. 유물목록과 대조하면서 하나 하나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해포 한다. 해포는 포장에 참여하였던 사람이 하여야 안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해외 순회전시의 경우에 여러 명의 유물관리관이 번갈아 파견되는데, 이들은 직접 포장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포장방법을 기록하여 두거나 사진촬영 또는 스케치하여 놓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또 유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포장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해포를 할 때에는 포장방법을 기록한 파일이 있다면 우선 이를 읽어 보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기록이 없다면 속에 싸인 유물의 구조를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조가 복잡하여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데 특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유물이 파손될 가능성이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그 다루는 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다.

유물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여러 겹으로 싼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잉포장은 재료

와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 만 아니라, 해포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유물을 파손시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삼가 하는 것이 좋다. 약한 부분에는 적절히 감싸 외부의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적정량의 포장재를 이용하여 시간과 재료를 절약하도록 한다.

유물을 빌려서 전시하고 이를 소장자에게 돌려 줄 때에는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오랜 전시 기간동안에 아무래도 유물에 먼지가 끼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에는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먼지를 털어내고 유물을 포장하는데, 다만 유물 표면의 장식·채색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소장자 앞에서 가져간 외피상자를 풀어 유물을 꺼내 상태를 살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연후에 그로부터 유물보관증을 돌려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유물을 해포하고 다룸으로써 소장자를 안심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유물을 거칠게 다룬다면 그것을 빌려준 소장자에 대한 커다란 결례가 되므로 유념하도록 한다. 이에 덧붙여 반환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로써, 유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소장자로부터 함께 빌린 케이스나 상자를 소홀히 하여 이를 빠뜨리거나 바꿔서 반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조심하여야 한다.

2. 유물의 안전한 취급방법

1) 유물 다루기의 중요성

오늘날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업무나 기능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비록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기능이 아무리 확장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는 유물의 보존관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유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국의 선진 박물관에서는 유물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정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그들에게 소양과 식견을 갖추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그들이 유물을 다룰 때에는 원칙에 충실하고, 자신이 배운 바를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열 사람이면 열사람 모두 같은 방법으로 유물을 만지고 움직이며 관리한다. 따라서 유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나 사고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물을 다루고 움직이며 전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손상되고 파괴되고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선배들로부터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이다. 이는 유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체계성이 없기 때문에 유물을 만지고, 움직이고, 포장하고, 보존 관리하는데 자연히 엉뚱한 실수가 생각지도 않는 곳에 복병처럼 도사리고 있다.

또 상당수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충분한 보존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다.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갖는 보존기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수장고 시설을 아무리 완벽하게 갖춘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인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하물며 온·습도 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오히려 유물을 훼손시키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 치의 빈틈과 오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유물관리의 세계에 이러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우선 유물보존을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유물관리자 양성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아울러 학예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최소한 다루기의 원칙과 기본을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유물 다루기의 실제

유물은 우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건과는 그 취급이 사뭇 다르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주전자는 아마 당시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실제 주전자의 손잡이를 잡고 거기에 담긴 술이나 물을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00여년이 흐른 오늘

날 그 청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유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렇게 선조들이 남긴 유물로서의 청자를 다룰 때에는 자연히 그 다루는 방법도 다르게 마련이다.

모든 유물에 해당되지만, 청자 유물을 떨어뜨려 깨뜨리지 않도록 두 손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 청자주전자에 뚜껑이 있다면, 이를 리시켜 따로 따로 옮겨야 한다. 더욱이 조심하여야 할 점은 청자주전자의 손잡이를 잡아들여 올려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 손잡이 부분은 청자의 가장 약한 곳으로 부러질 위험성이 가장 높고, 또 실제로 파손된 것을 수리하였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물을 만지고 움직일 때에는 그 전에 항상 약한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핀 후에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일

반적으로 유물의 손잡이, 테두리, 구석과 같은 부분은 구조적으로 약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거나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앞에서 예로 든 도자기는 그 자체가 섭씨 1,200° 정도의 고온에서 달구어진 무생물체이기 때문에 다루는 데 정신을 집중하여 조심스레 다루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편이다. 이에 비해 식물이나 동물체를 재료로 하여 만든 유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 손상을 입게 된다. 이들은 대체로 온·습도와 조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이들 유물에 대해서는 주위 환경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자연적인 손상을 줄이고, 만지고 움직일 때에는 수칙들을 잘 지켜 인위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유물을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이상적인 창고나 보관시설에 유물을 넣어 두고서 이를 만지거나 움직이지 않는 데 있다. 불필요하게 유물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손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학술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열람하기도 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전시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다른 지방이나 해외에까지 대여하는 등 유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물을 만져야 되고 또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유물을 만지고 다루고 움직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잘못을 범했을 때에는 오랫동안 보존되어 온 유물이 순식간에 그 가치를 잃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뿐 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막대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물을 다루는 데에는 정성과 기술이 필요하다. 항상 조심스런 마음가짐으로 유물을 대하고, 또 유물의 성질을 잘 살피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유물의 성질을 잘 살핀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않다. 유물은 그 재질이 무수하고, 개개의 성질 또한 다르기 때문에, 각 재질이나 구조, 성질에 맞게 다룬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에 함부로 접근하여 만지고 움직이려 한다면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유물에 대한 중요한 원칙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절대 실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유물을 다루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아무리 사소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도 작업에 대한 완전한 숙지와 극도의 조심성이 필요하다. 또 어떻게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유물 다루는 모든 방법을 완전히 파악하기란 어려우므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라도 숙지하는 것이 그 손상을 줄이는 첩경이다.

유물을 보관하는 데에 우선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동나무 상자도 그 자체가 곧 유물이라는 생각으로, 보관에 적절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한다. 유물을 오동나무 상자에 넣기 전, 종이에 포장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흔히 한지나 소지로 유물을 싸게 되는데, 오늘날 화학적인 성분을 가하여 생산되는 대부분의 한지와 소지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유물에 해롭다.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판매하는 데 타산이 맞지 않아서 오늘날에는 거의 생산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유물을 포장하는 데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한지를 구입하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수입에 의존하는 중성지(中性紙, Acid free tissue paper)를 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물에 안전하다.

이러한 모든 방법과 기술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하게 한다면 바로 유물 손상에 직결된다. 그래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물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또 다루는 수칙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유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모든 유물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다루기 전에 항상 전문 유물관리자나 보존과학자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유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 수칙을 몰라서 유물에 손상을 끼친 점도 많지만, 또 의외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다든지 번거롭다든지 하는 이유로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도자기를 한 손으로 들어 올린다고 하여서 꼭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는 두 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한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금속유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면 손에 묻은 기름기, 먼지 등이 유물에 해를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알면서도 막상 면장갑 끼는 것을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여 맨손으로 금속유물을 만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모른다. 유물이란 한번 손상이 되면 원상으로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유물이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음식이나 마실 것을 들여오지 않는 것도 기본이다. 담배는 화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연기가 유물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또 음식이나 음료는 해충의 번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수장고에 들여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음식이나 음료를 만진 손으로 유물을 만지게 되면 그 손상이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유물을 만지고, 만약 손이 더러워지면 다시 씻는다. 이러한 기본 사항은 마땅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유물을 다루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원칙을 내세워 이를 지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원칙을 잘 숙지하고 또 실무에 풍부한 식견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이에 못지않게 다루는 이의 정신자세가 중요하다. 유물을 대할 때에는 항상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하고 거기에 정신을 집중시켜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유물에 만지기 전에 우선 해가 될 것이 없는지를 잘 살핀다. 예를 들어 목걸이, 벅타이, 팔찌, 시계, 반지 등의 장신구는 유물을 만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풀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유물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에는 항상 두 손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다루고, 아무리 작은 유물이라도 한번에 한 점씩 움직이도록 하고, 두 개 이상으로 분리되는 유물은 따로 독립시켜 이동하여야 안전하다. 흔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조심하다가도 중요함이 덜하다고 생각되는 유물을 다룰 때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물의 가치나 비중을 가리지 말고, 항상 어느 것이나 가장 중요한 유물로 생각하여 다루겠다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

유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험을 가능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조심성이 더욱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물을 들고 뒤쪽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항상 뒤에 누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조심성을 가져야 한다. 유물을 두고 떠날 때에도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다. 포장된 유물을 푼 후에도 파편조각이나 소형 유물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는 포장 재료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

3) 유물보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있어서 해로운 것 가운데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이 먼지이다. 먼지는 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먼지 속에는 유물이 지닌 원래의 색이나 세부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는 데 주의를 필요로 한다. 유물에 붙은 먼지를 깨끗이 닦아 내는 작업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일만은 아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손상되기 쉬운 재질의 유물에 낀 먼지를 청소하는 작업은 많은 주의와 세밀한 기술이 필요하다.

유물에 붙은 먼지는 습기 중의 곰팡이 등 세균과 결합하여 부식을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유물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장이나 상자에 보관하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물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제거하여야 한다. 유물의 종류에 따라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르다.

도자기 같은 종류는 부드러운 형값으로 먼지를 닦아낼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솔로 털어내면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때 먼저 모래주머니를 유물에 받쳐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청소기의 흡입구에 먼지 이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망사를 부착하고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솔은 나일론이 아닌 자연모를 택하여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는 청소기의 흡입구를 유물로부터 5cm 정도의 위치에 대고 먼지를 빨아들인다.

대리석, 석회암, 석고, 사암 등은 때나 얼룩을 쉽게 타기 때문에 먼지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또 장식이 복잡한 금속유물에 한 번 먼지가 끼게 되면 이를 털어 내는 과정에서 유물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먼지를 예방하여야 하고, 그 청결 작업도 보존 과학자에게 맡겨서 실시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다.

회화만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의 경우는 예외이겠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진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종류의 유물들을 보관하는 데에는 개개 유물에 알맞은 방법을 고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일정한 원칙이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유물 보관에 적절한 보관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보관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고고학적 유물도 종류가 다양하다. 크기가 큰 석제품이나 토기는 보관장의 열린 선반이나 수장고 바닥에 받침을 깔고 그 위에 보관하되, 먼지가 끼지 않도록 중성판지로 덮어 두는 것이 좋다. 작은 유물들은 나무나 중성판지로 만든 상자에 넣어 이를 다시 장에 보관한다. 청동유물은 정기적으로 청동병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청동병은 급속하게 퍼지고 또 치명적인 손상을 주므로 보존 과학자에게 의뢰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

금속유물을 보관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40%~45% 정도가 적당하다. 보관 장소 밑바닥에는 패드를 대어서 금속유물의 굽힘을 방지한다. 은제유물은 녹 방지용 티슈나 천으로 싸거나, 밀폐시켜 공기의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세공품들은 작은 보관상자 안에 넣어 두거나, 보관장을 서랍식으로 하고, 또 거기를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그 안에 넣어 보관한다. 섬세한 유물은 순면이나 중성지, 또는 녹 방지용 천으로 감싸 두어야 하며, 보관서랍의 바닥에도 부드러운 천으로 패드를 대어 손상을 방지한다.

의상은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40%~5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되, 급작스런 온·습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기는 정화하여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해충 방제를 실시한다. 조명에 의해 염료가 변·퇴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장고의 조명기구에 퇴색방지용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조도를 낮게 하고 업무가 없을 때에는 조명을 꺼둔다. 상의는 걸개에 걸어 보관 장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걸개는 상의를 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길이여야 하고 옷과 달는 부분에는 중성티슈로 감싼다. 직물이 낡았거나 무거운 장식이 부착된 의상은 주름이 많이 가지 않도록 헐겁게 개켜서 상자나 서랍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민속품들은 대체로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 번 먼지가 끼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보관 장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드러운 중성지로 싸서 보관한다. 민속품들은 그 복잡한 구조 때문에 만지거나 움직일 때 파손의 위험이 많다. 따라서 보관 상자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또 옮길 때에도 이것을 들어 움직이는 것이 손상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부채는 이를 펴 둘 때에는 그에 맞는 받침을 만드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접어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제유물에 대한 이상적인 상대습도는 55% 정도이다. 목제유물 수장고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순환이 절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유물에 직접적으로 통풍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커다란 목제유물은 보관 장이나 함에 넣지 않고 보관한다. 따라서 여기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모슬린 천이나 폴리에틸렌, 또는 부드러운 종이로 덮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물론 유물들을 서로 쌓거나 포개 두지 않도록 한다. 칠기유물은 습기가 낮으면 민감하게 반응하여 쉽게 손상을 입는다. 대체로 55%~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항상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그 변동 폭이 크면 곧바로 손상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유리제품은 상대습도 40%~50% 정도가 적절하다. 유리는 가벼운 충격에도 파손되기 때문에 보관장 선반 바닥에 패드를 대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약 세워 두는 데 불안정한 유리제품이면 에타폼 같은 것에 구멍을 파서 움직이지 않게 안치한다. 아주 섬세하고 파손되기 쉬운 유리제품은 부드러운 티슈에 싸서 거기에 맞는 상자를 제작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유리제품 끼리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또 먼지나 습기가 끼지 않게 한다. 유리제품에 그림이 그려졌거나 금이 가서 파손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강한 점조명에 의해서도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삼가 한다.

병풍이나 액자는 앞서 말 한대로 끼우기 식 보관 장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다른 방법은 슬라이딩식 그물망 판을 시설하여 거기에 부착하여 두기도 한다. 액자유물은 전시하거나 이동할 때 자외선을 차단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대신 아크릴의 일종인 플렉시글라스(Plexiglas)를 끼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화유물을 보관하거나 이동할 때 그림이 그려진 면에는 항상 중성지를 대서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다. 편화(片畵)로 된 유물은 매트(Mat)나 홀더(Folder)에 끼워 두는 것이 좋고, 족자는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도록 한다. 서책들은 책갑(冊匣)을 만들어 거기에 싸두는 방법을 취하면 된다. 편화, 족자, 서책은 이와 같이 일차로 보관 장치를 한 다음에는 이를 다시 오동나무로 만든 보관 장에 넣어 보관하면 가장 이상적이다. 회화류 보관에 적절한 습도는 55% 정도이다.

흑백 필름의 보관은 상대습도 40% - 50% 정도, 그리고 천연색 필름은 15% - 25% 정도가 적정하다. 습도 뿐 만 아니라 온도, 빛, 화학성분 등도 사진에 영향을 준다. 더욱이 강한 산성을 띤 물질은 흑백 필름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그러므로 흑백 뿐 만 아니라 천연색 필름을 보관하는 데에는 중성의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으로 만든 비닐 끼우개를 사용하여야 해가 없다. 반투명의 종이끼우개를 이용하려면 이것도 중성에 리그닌(Lignin) 성분을 제거한 종이로 만든 것이어야 손상 없이 보존할 수 있다. 인화된 사진도 중성지로 홀더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사진을 넣고 접어서 보관한다.

어두운 장소에 보관한 천연색 사진은 주위의 온도와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매우 위험하다. 또 전시하였을 때 지나친 조명이나 습도도 쉽게 변·퇴색을 일으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보관에 적절한 온도를 살펴보면, 유리원판 필름이 15 - 25℃, 일반 필름이 21℃ 이하, 사진은 15 - 25℃ 이다.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만약 온도가 최고 32℃ 이상을 넘어 가게 되면 사진과 필름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밖에도 사진에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습도가 60%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진 표면에 발라진 감광유액(感光乳液)에 곰팡이 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하기 때문이다. 슬라이드 필름은 보관함에 끼워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유리원판은 영구 보존용 중성봉투에 넣어 열린 오동나무 보관 장에 옆으로 세워 보관하는 것이 좋다. 보관 장은 유리원판이 서로 붙지 않게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파서 거기에 끼워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유리원판을 세워 보관하지 않고 몇 장씩 쌓아 두게 되면 서로 붙어서 영상이 손상되므로 삼가 하여야 한다.

지도, 실측도면, 청사진, 포스터 등을 보관하는 데에는 도면함을 만들어 차곡차곡 쌓아 두기도 하지만, 이를 수직으로 세워 긴 집게로 묶어 보관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수직 보관함에는 여러 개의 집게를 시설하여, 이를 잡아 빼 도면 등을 걸고 다시 함에 밀어 넣도록 설계한다.